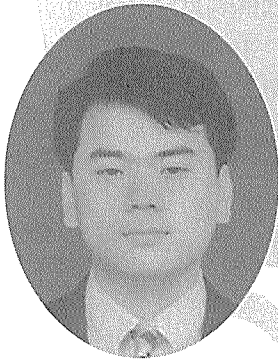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2)

- 준비물 챙기기



글 / 류지창
(주)데이콤 천리안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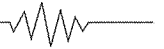
지만 인터넷 이용에 큰 지장은 없다. 펜티엄 컴퓨터라면 주기억장치를 16MB이상으로 갖추고 또한 윈도 95를 설치해둔 상태가 바람직하다. 사운드 카드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용량이 큰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CD-ROM드라이브만은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컴퓨터가 준비되었으면 다음으로 모뎀을 준비해야 한다. 모뎀(Modem)이란 전화선을 통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번역장치로 주로 컴퓨터의 본체안의 확장 슬롯(slot)에 꼽게 되어 있는 내장형 모뎀을 사용한다. 모뎀은 지원하는 속도에 따라 28.8Kbps, 33.6Kbps, 56Kbps 등의 제품이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단위시간당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전화요금이나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 다만 현재의 최고속도인 56Kbps모뎀의 경우 국제표준안을 따른 제품이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구입가능한 것은 표준안과 다른 X2계열과 K56Flex 계열의 두가지가 있다. 둘다 표준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면 표준모뎀이 출시된 후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 지원하는 기술이 다르므로 자신의 모뎀이 K56Flex 계열인 경우에 X2만을 지원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33.6Kbps의 속도로 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자신이 가입할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지원하는 56Kbps모뎀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모뎀이 준비되었으면 모뎀에 전화선을 연결해야 한다. 모뎀에 전화선을 연결할 때는 모뎀에 설치되어

이 달에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몇가지 준비해야할 것이 더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추가되는 준비물외에 먼저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인 컴퓨터를 먼저 살펴보자.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컴퓨터 IBM호환기종으로 펜티엄 프로세서나 486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컴퓨터를 갖추고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486기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억장치(RAM)가 16MB이상이라면 윈도 95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미만이라면 윈도 3.1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윈도 3.1에서는 조금의 제한이 있기는 하



있는 두 개의 전화선 연결잭중에서 Line이라고 쓰인 곳에 전화국에서 들어오는 국선을 연결하고, Phone이라고 쓰인 곳에 전화기를 연결해 주면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준비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야 한다. 하나는 인터넷 접속을 해주는 다이얼러(Dialer) 혹은 윈속(Winsock)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다. 이 소프트웨어는 모뎀을 통해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이얼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95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전화접속네트워킹”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윈도95 CD에 담겨있으며 추가로 윈도95에 설치해 주어야 이용할 수 있다.(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윈도95 CD가 무척 많이 쓰인다. 시스템 설정을 바꿀 때마다 CD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윈도95 CD는 컴퓨터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좋다.)

두번째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 접속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사용할 소프트웨어다. 최근에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라는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터넷 서비스이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웹브라우저(Web Browser)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사에서 제작한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4.05(한글버전은 4.03까지 나와있다.)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4.01(한글버전도 4.01이 최신버전이다.)이다. 두가지 소프트웨어 모두 자유롭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가입하면 두 가지 모두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을 CD에 담아 무상으로 나누어 주므로 별도로 구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윈도 95의 중요파일들을 많이 갱신하며 바꿔어주기 때문에 설치가 비정상 종료될 경우 윈도95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전에 실행

중인 모든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또 설치전에 설치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나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하나 주의할 점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두 상당히 큰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차지하므로 설치전에 충분한(100MB의) 여유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간혹 윈도95를 설치한 후 많은 소프트웨어를 설치/삭제를 반복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윈도95 CD에서 윈도95설치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한 후 설치 옵션에서 “손상된 파일 복구”를 지정하며 시스템 파일들을 정리한후 인터넷 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절차만이 남는다. 현재 국내에는 10여개 업체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중 한 곳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 요금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월 15,000원 가량이 일반적이다. 정액제이므로 아무리 많이 이용해도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요금외에 인터넷 사용시간에 비례한 시내전화요금이나 전화국에서 청구된다. 즉 전화요금에 따라 인터넷 이용요금이 따로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월 2~3만원의 예산이 인터넷 이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입을 하게 되면 이용설명서와 프로그램 CD를 제공받으면 설명서에 따라 “전화접속 네트워킹” 혹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이얼러와 웹브라우저를 설치한 후 사용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을 하기위한 준비물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준비물을 챙겨서 정보화 시대를 남보다 앞서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보기를 권한다.